

Investment Strategy 2026.9.30



글로벌

마켓 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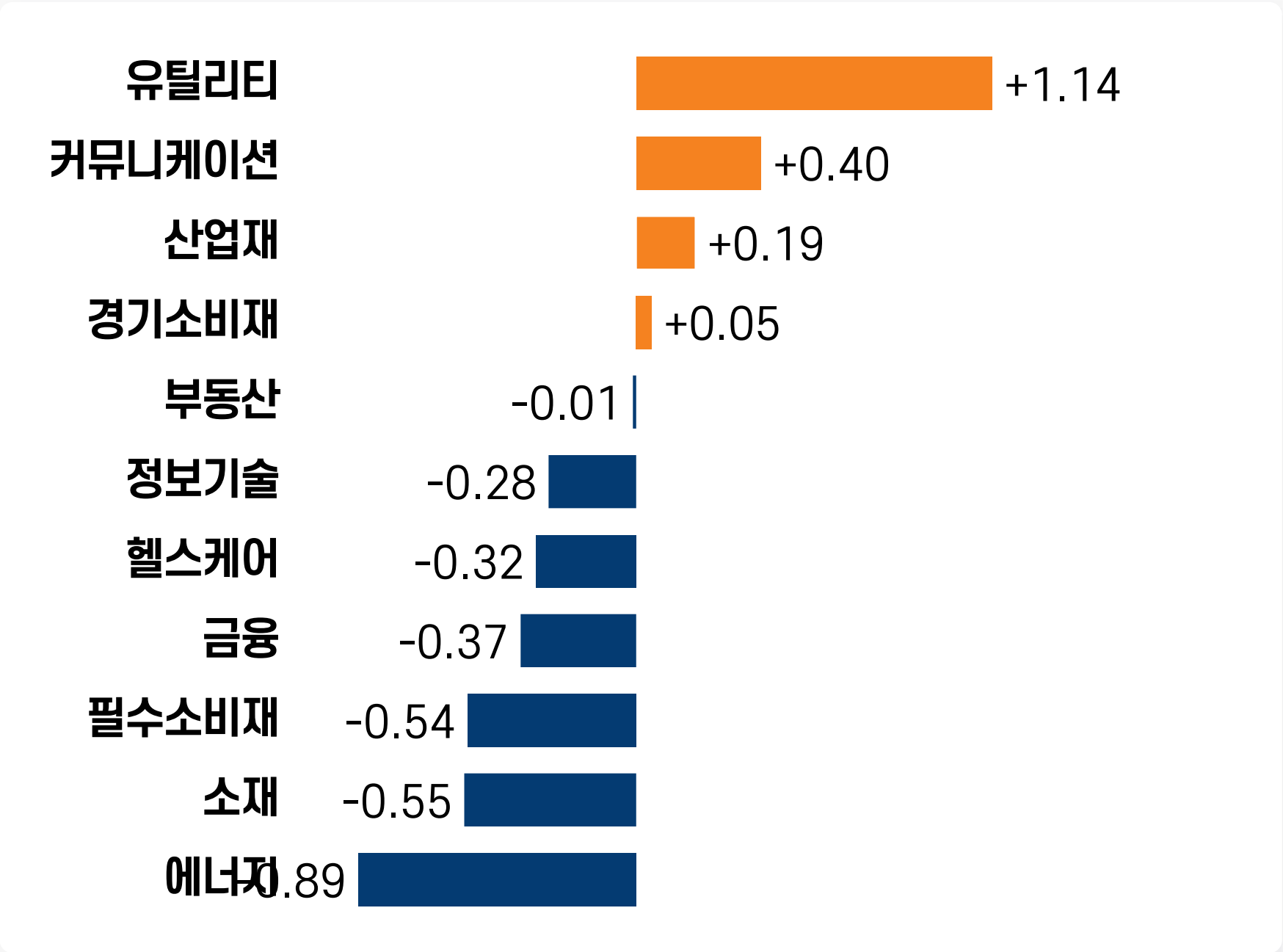
장기 금리 상승에도
미국 증시 약보합

미국증시 주요지수

지수	종가	등락률
다우존스 산업평균	51,349.92	-0.26%
S&P500	7,670.84	-0.17%
나스닥 종합	26,797.54	-0.09%
나스닥 100	30,339.33	+0.21%
러셀 2000	2,807.92	-0.35%
필라델피아 반도체	12,629.16	+1.32%
VIX	16.04	-0.19%

주: 작성 시점 기준

S&P500 업종 지수

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시장 눈높이 하회한 구인건수, 위축된 소비자신뢰지수

- ✓ 미국 8월 구인건수 707.9만건으로 예상 하회..'완만한 둔화'
- ✓ 채용, 퇴직, 해고 등 지표에서 노동시장 급격 악화 징후는 없어
- ✓ CB 9월 소비자신뢰지수 81.9로 예상 대폭 하회..12년래 최저
- ✓ 현재 사업 여건에 대한 소비자 평가, 2024년 이후 처음 '부정적'

주: 작성 시점 기준

부진한 경제지표와 유가 하락에도 장기금리 또 '신고점'

- ✓ 사우디 홍해 원유 수출 재개, 국제유가 3%대 급락..한 달 새 최저
- ✓ 부진한 지표와 유가 하락은 금리 하락 요인임에도 장기금리 ↑
- ✓ 10년물 국채금리 장 중 고점 5.2940%, 2007년 6월 이후 최고
- ✓ 30년물 국채금리 장 중 고점 5.6210%, 2002년 6월 이후 최고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주요 연준 인사 발언 키워드- 속도 조절, 매파, 소통

- ✓ 속도 조절: 윌리엄스 “차기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어”
- ✓ 매파: 굴스비 “연방준비법 내 시장 충격 최소화 조항 없어 ”
- ✓ 소통: 무살렘 “연준, 시장과 소통에서 발 빼면 안돼 ”
- ✓ 엇갈린 발언들..이어 나올 PCE 물가와 고용지표 방향성이 중요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승 특징종목

오라클

+3.91%

새로운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
‘퓨전 클로’ 공개, 기업용 AI 시장
경쟁력 강화 기대..5거래일만에 반등

블룸 에너지

+10.80%

캘리포니아에서 시설 인수 통한 생산
능력 확대. 제프리스, 목표가
264달러로 상향 “성장 전망 반영”

카니발

+13.41%

전분기 호실적과 여전히 강력한 예약
수요. 2027년 예약률 역대 최고,
2028년 예약률도 YoY 상승

마이크론 테크놀로지

+1.05%

실적 발표 D-1. 옵션 시장에서 실적
발표 후 약 7.7% 주가 변동 가능성
예상

스페이스X

+2.59%

로이터 “엔트로픽, 2029년까지
스페이스X 컴퓨팅 파워 사용료 최대
845억 달러 지불기로”

서밋 테라퓨틱스

+5.88%

아스트라제네카에서 20억 달러 규모
전략적 투자 유치..항암제 후보 물질
중심 임상 협력 진행 계획

주: 작성 시점 기준

하락 특징종목

애플 -2.66%

신임 CEO, 메모리 가격 급등과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 대응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착수

셰브론 -0.96%

국제유가 한 달 새 최저 수준으로 급락, 에너지주 전반 전일 상승분 되돌리며 약세

월마트 -1.77%

물가와 고용 불안 반영, 소비자 신뢰지수 12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..소매유통주 대체로 약세

브리스톨 마이어스 -1.60%

웰스파고 “폐섬유증 치료제 ‘아드밀파란트’ 임상 3상에서 간 손상 관련 안전성 문제 제기”

페어 아이작 -26.52%

미 연방주택금융청, 신용평가모델 단일화하는 가격체계 공개..신용평가 시장 내 경쟁 우위 약화 우려

테슬라 - 1.29%

유럽 교통안전위원회, 테슬라 FSD 시스템의 제한속도 초과 주행 가능성 지적..EU 회원국에 승인 거부 촉구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품 동향

WTI (10월물)	89.38달러	-3.48%
브렌트유 (11월물)	102.59달러	-2.58%

✓ 변동요인

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초 드론 공격으로 중단됐던 홍해 통한 원유 수출 재개했다는 소식에 유가 하락 압력.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 하회하며 한 달만의 최저 수준 기록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채권 동향

미 2년물	4.8765%	-5.40bp
미 10년물	5.2362%	+0.01bp
미 30년물	5.5658%	+1.92bp

✓ 변동요인

국제유가 하락에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던 국채금리, 파라마운트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을 촉매로 반등해 장 중 수십년래 고점 재차 경신.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발언으로 상승폭 축소, 단기물은 하락 전환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외환 동향

달러인덱스(DXY)	101.387	+0.19%
달러-원	1,356.70	-8.40원
달러-원 NDF 1M	1,351.20	-4.70원

✓ 변동요인

달러화 가치 2거래일 연속 상승. ECB 주요 인사 비둘기파적 발언에 유로 약세, 달러 강세 지지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Complian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